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탈리아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는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2020)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전염병은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생각으로의 초대'일지도 모른다. 유예된 활동, 격리된 시간들은 그 초대에 응할 기회이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단지 인간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 섬세하고 숭고한 생태계에서 우리가 말로 가장 침략적인 종이라는 것이다." 그는 '생각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되돌아가고 싶은지 등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고통이 헛되이 흘러가게 놔두지 말자"라고 말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 '전염의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생

한 사람의 힘

각을 한다. 그저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면서 불안과 안도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불안을 야기하는 바이러스 확산 주범을 찾아 분노하고 비난한다. 그런가 하면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기도 한다.

사람들은, 언제쯤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묻는 이들도 알고 있다. 여기에 정확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은. 그저 서로에게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잠시나마 불안을 떨쳐 보려고 애쓸 뿐이다. 수많은 예측은 빗나가고, 막연한 희망은 무너진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다. 우리가 원하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지연될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 있다. 이 지연과 반복을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이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의 한복판에서 그나마 생각한다 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건너 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인류의 삶을 생각하

고, 언젠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수많은 방역과 검사와 역학조사, 진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의료에 대해 생각한다. 일상의 변화에 따라 삶과 인생, 가족, 공동체, 생태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감염'과 '전염'의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 언론에 보도된 '학원 강사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감염 단어를 접하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감염이 결국 전염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모든 전염은 '한 사람' 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을 하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 대안이 고차 '한 사람' 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한 사람은 대구 신천지 신도나 인천 학원강사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사례인 것은 맞지만, 역

실적으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면 다른 상상도 가능하다. 바이러스 감염의 주범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감염시키고 확산시키는 '한 사람'을 상상하는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의 힘'을 생각하자는 말이다. 이때 '힘'은 일반적인 권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효과'에 가까운 것이다. 한 사람이 무제한적인 힘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조와 관계, 우연성, 상호성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것이다. 한 사람이 의도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작점을 찍는 것이다. '한 사람'은 약하고 부정적인 것의 숙주가 될 수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최소이자 최선의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의 힘'을 주목해 보자.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동물, 풍경에 보내는 눈빛과 몸짓, 말이 모여 그 사람이 감염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상상해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 연대와 희망, 우정과 환대, 공감과 위로, 감동과 찬사를 전파하고 전염시키자.

社說

5·18 당시 '편의대' 활동 증거 문서 나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악랄한 공작을 일삼았던 '편의공작대' (便衣工作隊, 일명 편의대)의 실체를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광주일보가 엮고계 송영길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계엄사후보고서'에 따르면 보안 사령부가 검열한 언론 내용 가운데 박종렬 동아일보 기자가 지난 1980년 5월 22일 본사에 송고한 '광주사태 속보' 기사가 포함돼 있다.

기사에는 "특전사 김희수 상사가 광주 시 지원동 다리 인근에서 시민군에게 붙잡혔고 김 상사 조사를 통해 군 작전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김 상사를 비롯한 일부 계엄군들이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사복을 입고 시위대에 매복해 사격을 했다"는 증언도 보인다.

또한 치안처·법제처가 작성한 '계엄사후 보고서(2)'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안사가 검열해 삭제했다는 내용도 있다. 5

·18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당시 은밀히 진행됐던 편의대 활동이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편의대는 80년 당시 505보안부대, 공수여단, 정보사령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31사단, 중앙정보부 등으로 구성된 공작을 했다. 이들은 시민군으로 위장한 뒤 과격 시위를 선동해 계엄군에게 유혈 진압 명분을 제공했던 특수부대. 5월 17일 새벽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배후이기도 하다.

편의대는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공개한 '5·18 편의대 정밀 투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악랄한 날조 공작을 쫓던 편의대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해야 한다. 특히 편의대는 지금까지도 궤변을 일삼는 5·18 편협 세력에 자양분을 공급한 공작단인 만큼 이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와 날조 행태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장록습지 후손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내 1호 도심 속 하천 습지로 기대를 모았던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사업이 중앙 부처 간 힘겨루기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장록습지를 국가하천 습지로 지정하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인 데 반해, 협의 부처인 국토부가 '습지 보전법에 하천은 습지에서 제외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 전까지 사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장록습지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삼 등 멸종 위기 4종을 포함해 모두 82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미래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선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시가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1000명)에서 시민 85.8%가 습지 보호에 찬성표를 던진 것 등 그 때문일 것이다. 올 초 광주시로부

터 지정 건의서를 받은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협의기관인 국토부가 습지보존법을 이유로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999년 8월 낙동강 하구 하천 일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10월 고창 인천강 하구까지 이미 전국 여덟 곳의 하천이 국가습지로 지정됐다. 그런데 국토부가 유독 장록습지에 대해 반대하는 건 환경과 개발을 놓고 환경부와 벌여 온 해묵은 갈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 사업은 지난해 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낸 모범 사례다. 따라서 광주시는 중앙 부처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합심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자비(慈悲)로 마음의 지형을 바꾸자

위를 두고 고민하고 물두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는 경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의 관계와 가치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코로나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으로 대상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손실과 범죄였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 그 누구도 믿음을 주지 않는 불신과 폐쇄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마음의 거리를 두는 문화로 확산될 것이며 대면의 문화에서 비대면의 문화로 탈바꿈되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이나 인터넷 쇼핑은 더욱 활성화 되고 사람들의 기피하고 인공 지능화된 기계와 로봇과의 대면을 거부감 없이 더욱 신뢰하며 이런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모든 영역에 비대면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 인간의 풍부한 감정과 아름다운 정서가 사라지고 딱딱한 이성만 움직이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이런 전환의 시대에 다가오는 혼돈과 충격을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누가복음

10:30-35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때려 맞아 거의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다만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준다. 또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충실히 돌보아 줄 것과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 갚겠다고 하며 끝까지 진절을 베풀고 가던 길을 간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풀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면서 사회적(이웃) 관계의 모델과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신다.

자비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타적 관점으로 옮김을 뜻한다.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극심한 이기주의의 폐쇄적 문을 부수고 타인 중심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이 마음의 발에 자비라는 씨를 다시 뿌리고 자라게 해야 한다.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 발이 중요하다. 마음 없이는 자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경계하며 방어적인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삭막하고 경직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비의 마음은 먼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경계를 넘어 고통당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된다. 자비는 타인에게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대상을 보는 눈이 확대되어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타인을 살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희생으로 귀결된다.

최근 코로나19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자비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위기에 빠진 국민들의 생명을 결사적으로 지켜낸 정부의 빠른 판단, 전염타와 같은 전염병의 현장에 몸을 던진 의료인과 봉사자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국민들, 이제 두려움을 동반한 경제침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5월과 다음 세대의 기억



김성훈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남동쪽 125마일 가량 떨어진 인적 없는 곳에 넓은 초원과 메마른 냇강 하나가 있다. 서부 확장이 한창이던 1864년 겨울, 원주민과 영토 분쟁을 빚던 연방정부가 일으킨 샌드 크릭 학살(Sand Creek Massacre) 현장이다. 이곳에서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 이었던 200여 명의 사이엔(Cheyenne)과 아라파호(Arapaho) 사람들이 600여 명의 중무장 기병대와 민병대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고, 몇몇 시신들은 끔찍하게 훼손되었다. 학살의 진실은 오랫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다가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1900년 초에야 드러났다.

그 후 샌드 크릭 학살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사이엔과 아라파호 사람들은 구술을 통해 세대와 세대에 걸쳐 이 기억을 전송했고, 이는 그림, 시, 자서전, 인터뷰, 영화 등 여러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비영리 공영방송 PBS는 생존자 후손들의 자세한 증언과 고증을 바탕으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배포했고, '솔저 블루'(Soldier Blue)라는 영화는 학살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시인 사이먼 오티즈(Simon J. Ortiz)는 '샌드 크릭으로부터'(From Sand Creek)를 통해 학살의 배경, 과정, 결과를 시작으로 형상화했는데, 이 시집은 널리 읽혀 대학교 역사수업의 교재로도 쓰였다. 2007년 마침내 샌드 크릭에 추모비가 세워지고 현장은 국립 유적지가 되었다.

40년 전 5월 광주에 대한 기억도 그러하다. 비밀리에 출간되었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그랬듯이, 한동안 금기시되었던 그날은 치열하게 기억을 지켜온 사람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들 개개인의 기억은 그렇게 폭압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른바 '공적 역사'가 삭제한 구체적 순간들을 복원해 내어,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었다.

다시 5월이다. 5월이 반복되었기 기억도 반복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는 때 보다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불비에 집꾸르게 일어는 들끓처럼 그날의 기억은 계속 재생되고 또렷해진다. 그것은 헬기 사격 흔적을 지닌 채 기억 문화 공간이 된 금남로 전일빌딩을 통해 역사화된다. 박관현의 기념비, 윤상원의 숲, 김남주의 길을 연결하는 전남대의 민주길을 통해 공간화된다. 기존의 영화와 다큐멘터리, 전시, 문학 작품은 물론이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래시몹과 VR을 이용한 젊은 세대의 다양한 추모 문화제를 통해 시각화, 예술화된다.

이 모든 기억 재생 활동은 더 나은,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세계 곳곳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추모비에 새겨 있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Never again!)하기 위한 것이다. 5월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간직한 현 세대와 그것을 이어받는 후세대가 연결되고 민주, 정의, 평화라는 공동의 유산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과제를 과거에만 집착한 퇴행적 행위로 치부하며 역사적 망각을 중용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후세대를 위한 기억의 존속에 대한 윤리의식을 역설적으로 일깨워준다.

누군가 애써 기억하지 않는다면 구 전남도청도, 전일빌딩도, 민주길도 그저 무의미한 콘크리트 덩어리라면 남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 샌드 크릭 학살의 진실이 결국 드러난 후에도 사이엔족과 아라파호족 사람들이 그 기억을 끊임없이 전승하듯이 또 다른 40년, 그 후에도 5월의 기억은 지속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기억은 과거로 옮겨다녀야 하지만 미래로 손 내밀어준다. 그 기억이 먼 훗날의 세대에 그들이 누구이며, 광주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무엇인지 말해 주리라.

無等鼓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한국편집기자협회는 당초 '5·18 특별 세미나'를 광주에서 열기로 했었다. 전국 45개 일간 신문과 통신사 기자 100여 명이 모여 '5·18과 편집'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다. 토론에 이어 국립5·18묘지 참배도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협회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회원사인 광주일보에 '5·18 편집기'라는 글을 의뢰해 한국편집기자협회보와 협회 홈페이지에 실는 것으로 세미나 행사를 대체했다.

올해 40주년 기념식 필자는 5·18 관련 기사와 편집을 담은 '그 해 오월 금남로에 있었다... 40년 지난 오늘도 그날을 편집한다'는 글을 보냈다.

그 글에도 소개했지만 필자는 5·18 20주년인 2000년, 희생자 339명의 얼굴을 5개 면에 넣고 '오월광주 불타붙은 꽃 넋들 민주재단의 햇불로 타오르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희생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면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2017년 5·18 36주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하자 원곡 악보 사진을 1면에 올리고 '광주는 입을 부르고 싶

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2018년 5월 10일자에는 1980년 5월 27일 아침 도청 학살 직후 계엄군 소준열 전교사령관과 박준병 사단장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엔 '광주가 통곡할 때 이들은 웃고 있었다' 기슭엔 확인사살, 얼굴엔 살인미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까지 왜곡과 망언이 끊이지 않자 '못 밝힌 진실 못 끊은 왜곡' '광주에 배(비)가 내린다'는 제목으로 편집했다.

올해 40주년 기념식에는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열렸다. 행사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였다. 발포 명령과 암매장 등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담아 5·18의 심장인 도청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니 세상 감회가 새로웠다.

기사의 성격은 제목에 의해 좌우되고 역사적인 사실도 편집을 통해 인식된다. 편집기자들이 정확한 제목 한 줄을 뽑기 위해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5·18과 편집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